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본 국제개발협력 교육과 YGA

김두연 ((사) 팀앤팀 이사, (사)좋은교사운동 본부 청소년 위원장)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은 시대성에 비례한다

시대마다 선교의 방법과 형태도 변화했다. 근대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한 윌리엄 캐리의 총체적 선교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 이후 허드슨 테일러에 의한 내지선교(內地宣敎: Inland Mission)는 선교의 지경을 대폭 확대하였다.

도날드 맥가브런과 카메룬 타운젠트의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개념은 지금까지 주요 과제로서 세계선교의 방향을 주재하고 있다.

기독교와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은 시대성에 비례한다. 당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이루어질 때, 당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승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실제이고 원리가 된다. 세계의 일부인 개인은 모든 민족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만드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이 쇠락한 학교 현장

그러나 학교 현장은 진학과 진로, 오직 성적과 성과가 중심이 되었다. 기독교 학교도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의해 일반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독교 학교와 기독 동아리 활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락한 결과이겠지만,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둘째, 기독교사 헌신도의 약화이다. 기독교사의 정체성은 전문인 선교적 인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데,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자세는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하게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셋째, 교사에게 투입되는 업무량이 막중하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행사하면 해결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운동 YGA(Youth Global Action)의 배경

기독교와 교회, 기독교사와 기독학생, 그리고 기독 동아리가 약화되는 학교 현장을 목도하면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한 교육운동이 YGA(Youth Global Action)이다. 한 학교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8년간 진행한 결과 진학 효과가 증명되었고, 학교 내 변화를 주도하여 학교 당국과 교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기독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30년의 교직을 정리하고 전임사역으로 나선 뒤, 2년 동안 전국 초, 중, 고 46개교에 YGA를 보급하였다.

YGA(Youth Global Action)의 기본 개념 세 가지와 5단계 진행과정

YGA(Youth Global Action)는 다음 3가지 개념을 기초로 출발한 교육과정이다.

- Youth는 청소년과 청년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과정이다.

- Global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발전과 고통을 동시에 살펴서 지구촌의 고통 상황(Global Issue)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또 세계의 고통 상황을 해결하려고 국제사회가 진행한 모든 사업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 명명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배경과 그 이면까지 파악하게 함으로써 구호와 개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게 하여 향후 참여할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과정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한다.

- Action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Think Glob-

ally! Act Locally!("세계를 품고 지금부터 행동하자")는 구호로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발전을 추구하고 왜곡된 것들을 개선하여 정상화시키는 지역사회 개발활동에서 시작하여 국제사회 개발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특활, 특기적성, 동아리, 방과 후 동아리, CA(Club Activity), 상설 동아리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되 5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 강의 4회로 글로벌 이슈 전체를 파악하게 하여 학생과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세계 속에서 상호의존관계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질병과 기아, 가난과 억압, 그리고 지구환경 파괴의 원인과 경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강의 수강 후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보고서는 논문형식 40쪽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게 하는데,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 발표회를 통해 강의 내용을 내재화시킬 수 있게 된다.

- 캠페인 활동은 유엔이 지정한 UN Day를 중심으로 지구환경의 날, 난민의 날, 공정무역의 날, 아동노동추방의 날 등 학생들이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실행하게 한다.

- 봉사활동은 활동처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주로 국제활동이 가능한 영역을 개발하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관련 지원센터 등에 초점을 맞춘다.

- 체험활동은 KOICA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휴 · 활용한다.

이 5단계 진행과정은 1년 이상의 과정으로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임무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J. P. 샤르트르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식인의 임무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과 그 경과를 살핌으로써 해결 방법을 찾을 뿐 아니라 문제의 상호연계성까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문가는 많으나, 지식인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진리인 성경의 빛으로 세상의 논리를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은 동의어여야 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결과는 모든 초등학문을 아울러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과 교육, 그리고 선교

지금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는 활발한 활동과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참여함으로써 한국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점차 그 폭을 넓히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독립하고 자존(自尊)한 사례는 아직 드물다. 20년 가까이 국제개발 NGO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사실 ODA를 실행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확실하게 자국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정치 · 경제적 의도로 출발하였기에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또한 프로젝트 끝에 나타난 결과로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사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결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할 가치체계이다. '세계관'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계 각 영역 간 교류의 필요성과 삼국지 조자룡에 대한 반추

최근에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알게 되었다. 30년간 교직에 있었고 기독교사로 활동해 왔으면서도 이 학회를 몰랐다는 점을 생각하며 앞으로 현장교사들에게 알릴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전문인 선교와 관련하여 이 학회에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매우 중요한 활동을 지속해 왔으니 각자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훨씬 더 강한 효과를 선교 영역에서 거둘 수 있는데도 영역 간의 교류가 단절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했던 모든 영역의 핵심 인사들을 연결하고자 한다.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있으면서 교육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일치하지 않는 일상에 대해서는 늘 가책을 느꼈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조자룡이 적진을 뚫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주군 유비의 아들을 구출해 오는 모습을 바울서신들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 나는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김두연 국민대에서 학사를, 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Global Governance를 전공하였다.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국어교사로 섬기다가 조기은퇴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팀앤팀의 이사이자 좋은교사운동본부 청소년위원장 겸 YGA연구모임 대표로 있다.